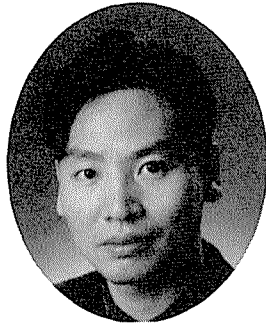


성년이 된 석유협회보, 새로운 시대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하며



박준완

〈LG칼텍스정유 홍보팀 대리〉

여의도 윤중로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은 봄의 장관을 연출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석유협회보도 생일을 맞습니다. 올해는 스무해 생일이라 더욱 뜻 깊습니다. 윤중로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 만큼이나 많은 업계관계자들은 석유협회보의 성년됨을 축하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과 의견을 모아 하나의 일치된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업계의 사람들은 20년을 한결같이 업계인들의 마음의 가

교 역할을 해 온 석유협회보에 기대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다름에 반박하며 때로는 일치된 의견에 공감하며 말입니다.

2001년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어린시절 멀게만 느껴지던 21세기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달나라로 수학여행을 가고 수중도시에도 사람이 사는 그리하여 모든 인류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꿈같은 시공간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업계가 맞은 21세기는 어쩌면 매일 아침 출근길에 회사

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지도 모르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전반에 걸친 불황과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석유업계의 경영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은 물론, 석유제품가격의 자율화 및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 등 최근 수년간 시행되어온 일련의 석유산업정책 변화들은 정부주도의 가격체계에 익숙해 있던 국내 석유업계의 기반과 경쟁구조를 뿌리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일시적 혼란은 시장 참여자 뿐만 아니라 언론, 국회, NGO 등으로부터 술한 오해와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우리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유협회보가 다양한 기획과 충실한 내용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위상과 석유업계의 사정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많은 공헌을 해 왔음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의 시기, 위기의 시대를 맞은 우리 업계가 깊은 한숨을 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내 산업발전의 중추로서 당당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석유협회보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더 많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스무해는 지나간 삶의 궤적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스스로 조망해 보는 아주 뜻깊은 시기입니다.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에 대한 독자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래로 성년이 되면 남자는 땅아 내렸던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관을 씌웠으며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걸모양을 바꾸어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석유협회보가 다양한 기획과 충실한 내용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위상과 석유업계의 사정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많은 공헌을 해 왔음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의 시기, 위기의 시대를 맞은 우리 업계가 깊은 한숨을 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내 산업발전의 중추로서 당당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석유협회보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더 많을 것입니다.

이제 성년을 맞은 우리 석유협회보도 그동안 잘해 왔던 과거의 모습들을 잘 갈무리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걸맞은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의 환골탈태를 모색해 봄은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표지디자인에서부터 느껴지는 딱딱하고 보수적인 얼굴을 거두고 서로의 응성을 바라는 믿음 속에

업계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각도 여과 없이 제시하고 업계내의 아픈 논쟁도 다루며 열린 시대에 걸맞은 업계내 새로운 발상의 샘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